

하얀 비닐 속에서 나온 책



백종민

공릉중학교 수석교사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 지능, 스마트폰, 자율 주행차 등의 단어들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신기함을 넘어 익숙하게 들리는 시대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비교적 변화가 느린 학교까지 아이들 미래의 삶을 대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 내용으로 만나는 곳이며, 그 교육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방향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다른 책과 달리 인류가 축적한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후세가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몇 년간 엄선해서 만든 학습 자료로서 현재의 삶에서 학생의 미래 삶을 명확하게 담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과학 중 물리 교육이 전공했으며,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의 양과 속도는 교과서의 교육 내용으로 담아내기에는 그 변화 속도를 따를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변화가 느린 자연에 대한 지식을 담은 과학 교과서 속에는 이전에도 지금도 유용한 지식 위주로 채워져 있어 변화를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수업 종이 올리면 손엔 이전의 내용을 담은 것 같은 교과서가 함께 교실로 가고 있으니깐.

수석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밖에서는 계속 변화를 요구할까? 교육과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때늦게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과서에 관련된 수필 형식의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동안의 경력이 만든 전공과 관련된 교수 방법적 지식은 웬만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현장 교사, 학생 입장에서 쉽고 유익한 교과서 집필 경험 정도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교과서에 대한 일상적 감상 글을 요청받았으니 교과서 집필보다 더 큰 부담감과 고민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교과서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덕분에 나는 더욱 유익한 선물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받게 되었다. 하얀 비닐봉투에 담긴 책 한 권은 나의 교사 생활을 더욱 탄탄하게 지탱하는 큰 선물이었던 것이다. 바로 『교과서연구』라는 전문 잡지이다.

『교과서연구』가 처음 배달되던 날, 나는 내 글을 실은 기념으로 1회 배달로 가볍게 여겼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호감과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마침 내가 공부하는 대학원의 ‘교재 연구 개발’이라는 과목에서도 교과서에 대한 논문들을 무겁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서연구』 속에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학습 자료로서 교과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실제 활용되는 모습의 소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의 교과서 모습, 교과서와 관련된 논문이나 학술적 자료, 심지어 교과서 관련된 삶의 이야기까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전공 공부와 함께 교과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전문 서적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은 시작종 울림으로 시작하고 몇 번 교실을 들어가고 나오고, 수시로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과 평가를 고민하는 바쁜 일상의 연속이다. 이럴 때 퇴근하는 집 우편함에 놓인 하얀 비닐봉투를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함에 급히 비닐을 뜯는다. 그리고 책 내용을 훑기 시작하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사진으로 찍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준비했다. 일단 손에 쥐고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 나의 책장 한 칸에 마련한 『교과서연구』칸에 고이 차지하게 해 준다. 이렇게 『교과서연구』는 나의 교수·학습 자료, 각종 교사 연수 자료, 그리고 나의 대학원 연구 활동에도 새로운 정보와 동력을 제공하였다.

교과서연구

100

1. 수업에서 활용하다

『교과서연구』 책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표지의 ‘특별기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목차>를 보게 된다. 현장 교사로서 아마도 가장 반가운 경우는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교과서 제작은 보통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집필과 검정 통과 수정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바로 이어서 지도서 자료, 참고 도서 등의 교재들의 집필이 이어진다. 집필진 교사들과 출판사 편집진 등이 만나서 전체 모임, 영역별 모임 등의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체력과 지력, 정신력까지 요하는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거칠고 추상적인 문구를 때로는 폭넓게, 때로는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합의를 거치고 그 결과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면 현장 교사 입장에서 집필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집필 교사들은 교과서가 지니는 엄격성, 구속성을 벗어나 현장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남달리 항상 큰 관심이다. 따라서 『교과서연구』에서 실제 구현된 교육과정을 소개한 자료를 만날 때면, 특히 내 전공 과목일 경우는 더욱 반갑다. 수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내 수업에 직접 적용해 보거나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내 수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 수업을 자주 참관하거나 컨설팅하면서 배우는 나 역시도 소개되는 자료를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워크숍, 컨퍼런스 내용, 이에 대한 현장감 있는 자료나 연구 논문이 제시되어 있어 그 연계성에서 현장의 교수·학습 자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위주의 통합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에서 백워드 수업설계까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나 나눔이 부족한 현실이다. 어떤 학교는 선도적으로 앞서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기도 한데 당장 해보려고 할 때도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때 『교과서연구』에서 특별기획으로 제공되는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에 대한 자료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과정과 적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유익하고 활용도가 높았다. 특히, 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인 창의

적 체험 활동 관련 진로 교육, 환경 교육, 인구 교육, 인성 교육 등의 자료는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소개된 교수·학습 자료들 대부분은 여러 과목과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초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이와 달리 교과목의 특성이 강한 중·고등학교 자료는 사례 수가 소수이며, 소개된 자료도 그 과목의 내용이 깊이 있게 제시되어 많은 교사들보다는 해당 소수 과목에게만 유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활용으로 소개된 자료들의 현장 실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한 학습 주제에 대해서 교육과정 분석에서 핵심개념 설정, 교수·학습과 평가 과정이 전체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을 보여 주어야 독자의 이해가 쉽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연계된 깊이 있는 자료가 제시되기보다는 한 개인 교사 자신의 과목 전체 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주제에서 다양하게 적용했던 좋은 사례 중심으로 해당 차시별로 소개되어 ‘깊이 있는 학습’ 사례라기보다는 ‘폭넓은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교과서연구』가 계간지로 발행되다 보니 외부 기관에 의해 소개되는 학습 자료들보다는 중요한 기획물들이 시기적으로 소개가 늦기도 한다.

2. 연구자로서 만나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원에서 ‘교재 연구 개발’ 과목을 수강했는데 교과서 개발 방향,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그리고 자유발행제 등의 교과서 발행 제도까지 다루었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는 일부 과목이 있는 시기여서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다. 여기서 국민성 형성을 위한 국정제와 다양성에 기반한 자유발행제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정부는 인정제, 자유발행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제작 과정, 교과서의 편집·디자인 규정 등 교과서의 규격과 질에 대한 법과 제도에 관해 배울 수 있었다. 『교과서연구』는 이러한 수업 내용을 충분히 보조해 주는 훌륭한 자료였다.

어떤 날은 매년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교과서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이 대학원 현장 수업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그곳에서는 싱가포르나 프랑스 등의 국외에서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개와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져 교과서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나는 이곳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발표자의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중요한 내용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바쁘게 기록하거나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긴장감 있게 보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배달된 흰 비닐 속 『교과서연구』에는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내용이 지상으로 중계되듯이 사진과 함께 사용한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어 더욱 놀랐던 기억도 있다. 다행히 잘 정리된 자료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최근에 나는 학교 공기질 통합 관리라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학교의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인터넷으로 환경 교육 관련 자료나 논문을 읽어보며 최근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악화된 점, 학교 시설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려해야 할 문제 등 대해 고민하던 중 『교과서연구』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작년 발행된 책에서 환경 교육에 관한 자료를 접하고 환경 교육의 방향이나 쟁점, 지역 연계 및 통합적 접근 방안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 내가 필요한 것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유용함을 최근까지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3. 세계의 교과서와 만나다

『교과서연구』에서 〈국제동향〉은 매년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국제적 교과서와 관련된 코너이다. 세계의 교과서 정책이나 교육과정의 변화, 때로는 국제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들이 제공되어 새로운 소식을 전해 준다.

최근에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우리나라 교육 혁신을 위해 IB 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한 글들이 실렸는데 IB를 연구하는 교육자와 실제 우리나라에서 IB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사의 글을 통해서 국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운영 모습,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을 실제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거나 각국의 교과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글들도 세계의 교과서 개발 방향이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가의 교과서 발행과 저작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 발행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중·고등학교 예·체능 교과 등의 비입시 과목을 대상으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서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업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교과서연구』의 <국제동향>에서는 각국의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으며 각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영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교과서 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는 교과서 발행 인정제, 독일과 이스라엘은 검정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되어 있는 덴마크에서는 교사가 직접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유롭게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각국의 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는 각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국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좋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과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연구』 글의 세계적인 동향은 교과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합리적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었다.

4. 교과서의 미래를 그려 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가 몇 달간 휴업 중에 있다.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한꺼번에 전국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준비했다. 우리 학교는 내가 주도가 되어 온라인 수업을 사전에 대비했다. 미리 플랫폼이 결정되어 학생 계정과 교사 계정을 인증하고, 수업 참여 방법과 수업 촬영 및 수업 녹화 영상제작 등을 연수하고 학년별로 제작된 자료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단계까지 일정에 맞추어 차곡차곡 진행한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온라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수업 도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의 관심은 한 차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효과적인지 수업이 되는지 그 내용을 되돌아보는 여유도 생겼다. 코로나로 인하여 큰 그림이나 지향점에 대한 준비도 없이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인란 말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학생과 학생의 상호 작용,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 협력적 학습 활동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률적 출석 점검과 6~7교시까지 진행되는 일방적인 지식 숙달과 과제 해결 방식이 점점 자리 잡혀 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대적으로 학생의 학습 이해도와 학습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학부모의 반응, 학생의 학습 효율성에 대해 제대로 된 피드백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온라인 수업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여러 논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논문은 지금과 같은 일률적 온라인 수업보다는 일부 학생을 위한, 또는 소수 선택 과목을 위한 원격 학습에 대한 자료들이 많아 나의 답을 구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책장에 꽂혀있던 『교과서연구』 책에 적힌 ‘미래 지향적 교과서’란 글자가 들어오고 <특별기획>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기 조절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 학습의 흐름이나 필요한 학습 활동, 도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 내가 원하던 실제적인 답들이었다.

그러면 실제 교과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등교가 늦어지면서 연간 시업 시수가 감축되었다. 이는 이전처럼 서책형 교과서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진도를 따라서 한 차시 한 차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시수 부족으로 교과서 내용 전부를 가르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들은 단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 중에서 핵심 개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수업이니 교과서를 보면서 진도를 나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단원의 필수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 학습자료를 교과서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해야 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방법, 학생의 학습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했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교과서는 단지 교수·학습에 필요한 많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면 충분했고, 가르치기보다는 학생이 어떤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거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되었다. 수업 방식들도 글쓰기나 토론, 공동작업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상대적 활용이 낮았던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디지털교과서는 곳곳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링크되어 교사가 필요한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에서 필요한 수업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게다가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넘어서 시청각 자료, 영상뿐만 아니라 가상 박물관, 가상 미술관 등의 AR, VR의 가상 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갖추어진 미래형 교과서로 진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교과서에 대한 이해력과 안목을 넓혀 준 것도 『교과서연구』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안다.

또 다른 혜택도 있다. 내 책장 한 곳을 차지하는 계절을 닮은 색깔로 가지런히 꽂혀진 여러 권의 『교과서연구』 책이 주는 혜택이다. 온갖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바로 얻을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손으로 바로 펼치고 볼 수 있는 서책형 『교과서연구』가 주는 혜택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대한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이 강조되면서 교과서가 학습 안내 자료로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온라인수업을 경험하면서 ‘교과서로 가르치다’에서 ‘교과서를 이용하다’로 바뀌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능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반, 기술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로서 미래 지향적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도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교육과정 목표를 실제로 구현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과서의 모습, 교육과정을 전공한 연구자 관점에서 본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지향적 교과서의 모습 까지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히고 있다. 그 중심에 그동안 교과서 정책과 제도, 연구 논문, 현장 교육, 그리고 삶과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아 준 『교과서연구』 전문 잡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자와 현장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연구지가 되길 바란다. 

필자 소개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 지도서를 집필하였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과학과 교육과정, PCK 연구,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에 관심이 많다.